

[2022-3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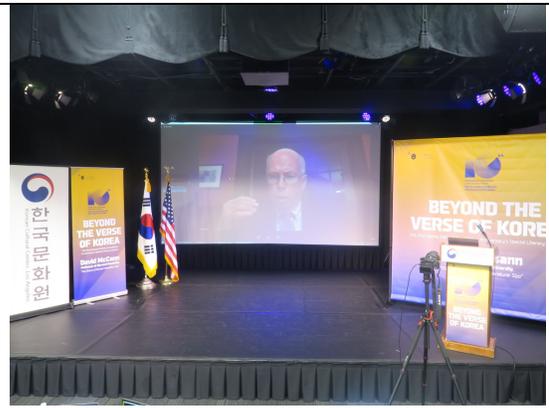
 한국문화원 Korean Cultural Center, Los Angeles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2쪽	
배포일시	2022.6.30(목)	담당부서	LA한국문화원 한국어교육		
연락처	323-936-3025(O)/323-775-7557(C) /seung822@kccla.org	담당자	노승환		

LA 한국문화원-미국 거점세종학당, 세종학당재단 출범 10주년 기념

『한국문학 명사 특강』 성황리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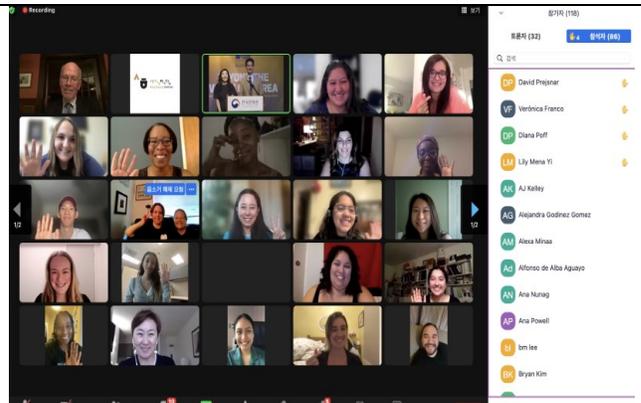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환영사



데이비드 맥켄(David McCann) 교수 특강



참가자들과의 Q & A



참가자들과의 단체 기념촬영

LA 한국문화원(원장 정상원)과 미국 거점 세종학당(소장 정은미)은 한-미 수교 140주년과 세종학당재단 출범 10주년을 기념하여 6월 29일(수) 18시 30분 한국문학 명사 특강을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치러진 이번 행사에는 캘리포니아 뿐만 아니라 하와이, 알래스카, 오레곤, 애리조나, 매사추세츠, 뉴욕, 일리노이, 펜실베이니아 등 미 전역 39개주의 한국어 수강생 및 한국어 교육 관계자 약 180명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이번 특강의 연사로 나선 데이비드 맥켄(David McCann) 하버드대 교수는 1966년 미국평화봉사단의 단원으로 한국 안동의 고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다가 김소월의 시를 읽고 한국 문학에 빠져들었고, 그중에서도 시조에 심취하였다. 이후 귀국해 1976년 하버드대에서 한국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코넬대와 하버드대에 재직하면서 한국문학을 강의해 오면서 약 10여권의 한국문학 서적을 출간하였다.

이 날 강연에서 맥켄 교수는 '한국 시조의 매력(The Charm of Korean Literature: Sijo)'이란 주제로 시조를 향한 맥켄 교수의 삶과 문학적 성과를 소개하는 한편, 앞으로 한국문학이 미국 사회에서 더 널리 알려지는데 필요한 제언도 함께 제시하였다. 30분간의 강의 후에는 질의 응답의 시간도 마련하였으며, 맥켄 교수의 팬이라는 엘리씨는 맥켄 교수의 특별히 좋아하거나 마음에 드는 시조에 대해 질문하였고 교수는 "처음에 시조의 세련되고 멋스러운 표현방법에 끌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조에 담긴 음울은 새로운 감성과 특별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시조는 흥미로운 단어 배열로 이루어진 "Entrance"라는 자작시조입니다"라고 답해 맥켄 교수의 한국 문학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LA한국문화원 정상원 원장은 "한미 수교 140주년과 세종학당재단 출범 10주년을 기념하여 마련된 이번 특강을 통해 미국인들이 한국문학과 시조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한국어와 한국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학당재단(이사장 이해영)은 올해 출범 10주년을 기념하여"10인의 명사 특강"을 기획하였으며, 지난 3월 베트남에서 시작되어 미국이 세 번째로 이어받아 진행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12월까지 전 세계 곳곳의 세종학당에서 열 번째 명사특강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끝/